



AUG 2025

VOL. 280

▲ 밀알캠프(7.31~8.1)에 참여한 성서대학교교회 어린이들이 일정을 다 마친 후 야공의 사다리 앞 포토존에 모여서 은혜 충만했던 순간을 남겼다. [관련기사 2면]

# KÓKKOS 8

# 밀알캠프에 30개 교회 239명 참가

학우 자원봉사자 142명, 폭염 속 삶으로 복음 전해

2025년 밀알캠프(청소년 7.28~7.30, 어린이 7.31~8.1)가 “예수로 채우자”(빌2:5) 주제로 캠퍼스에서 열렸다.

## ◆ 청소년 캠프

청소년 캠프는 예배와 찬양, 성경공부, 공동체게임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예배에서 담당 김창현 목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모든 일에 대처할 일체의 비결과 능력을 주는 원천이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라”고 설교하였다.

청소년들은 저녁 찬양 시간에 주님의 말씀 속에 사는 자의 기쁨을 찬양의 선율에 맡기며 은혜에 젖었다. 그룹별 성경 공부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릴 풍성함과 은혜를 배웠고 공동체게임으로 교감을 넓혀갔다. 취침 시간에는 신앙과 삶의 고민 등을 방송으로 청취하며 서로를 공감시켰다.

청소년 캠프는 17개 교회, 102명이 참가하였고 참가 교회 인솔교사들도 39명이 함께 캠프를 도왔다. 캠프의 실제 운영은 총학생회 중심으로 81명의 자원봉사 학우들이 기획 단계부터 모든 준비를 하였고 실제 캠프 운영을 도맡아 치러냈다.

## ◆ 어린이 캠프

어린이들은 첫날 농구장에 마련된 대형 야외 풀장에서 쏟아진 물줄기와 미끄럼틀에 온몸을 적시고 떠들며 한낮의 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리는 즐거움을 맛봤다.

어린이 캠프 개최예배에서 반우형 목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변화되고 세상까지 바꾸는 힘을 갖는다. 이번 캠프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어린이가 되자”고 설교하였다.

어린이 캠프에는 13개 교회에서 137명의 어린이와 인솔교사 31명이 참가했다. 총학 자원 봉사자는 모두 56명이었다.

## ◆ 인솔교사 간담회

인솔교사들은 일립관 B101호에서 간담회를 갖고 교회가 처한 현실과 비전 간의 고민과 갈등을 나누며 위로받는 시간을 가졌다.



▲ 밀알캠프 진행과정을 헌신적으로 섬겨준 학우 자원봉사자들

##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 139:23~24 구광면 목사(교목실)

시 139편은 다윗이 노년기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윗은 오랜 세월 사울을 피해 도망자로 살았다. 그의 경험은 찢어질 듯한 경험이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분(1~6절) 자신이 있던 곳에 언제나 함께 계신 분(7~12절) 자신을 지으신 전능하신 분(13~16절)으로 고백하였다. 17~18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위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수에 대해서 노래하기도 했다.

사람마다, 인생의 위기를 경험한다. 그 경험

에서 열등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잠을 이루지도 못하며, 자만과 교만으로 가득차 하나님을 등지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신다. 다윗은 139편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자기 생애에 자신을 괴롭히던 악인들을 처단해 달라고 요청(19~22절)함과 동시에 자신을 살피는 기도(23~24절)를 잊지 않았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2025년도 반절이 지나간다. 내 삶이 여전히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돌아보자!



21년 3월 교

##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당당

미래를 설계하고  
해외 진출에 대한 강력한 자극  
2025 KBU 글로벌 챌린지  
「임팩트 Impact!」 팀



▲ 독일 Celonis 뮌헨 본사를 방문한 임팩트 Impact! 팀  
왼쪽부터 Alexander Dahmen(뮌헨 공대 재학생 인턴 중), 마다현 4, 신정은 3, 곽현우 4, 한기준 2, Markus Dieckmann (한국, 일본 지사 디렉터)

2025 KBU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에 따라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선도기술기업과 대학을 방문하고 돌아온 「임팩트 Impact!」 팀은 “어떤 시선과 관점으로 지식을 바라보고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다”(신정은 컴소 3)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여행을 통해 “서툰 영어로의 소통이 부끄럽기 보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당당히 표현할 수 있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마다현 컴소 4)며 단단해진 자신을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팩트 Impact!」 팀은 7월 6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독일의 Celonis 뮌헨 본사, TUM 뮌헨 공과대학교를 방문하였고 뮌헨 한인회가 개최한 현지 한인전문가들과의 멘토링 시간도 가졌다.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스마트교통운영시스템 센터를 견학하였고 TU Wien 공과대학교를 찾아 연구진으로부터 탄소중립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도 받았다.

곽현우 학우(컴소 4)는 독일에서 활동하고 한인 개발자가 자신의 꿈을 이룬 과정을 전해 줄 때 큰 자극을 받았고, 자신도 도전해 보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기준 학우(컴소 2)는 “글로벌챌린지를 통해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새로웠던 유럽에서 시야를 넓혔다.” “Celonis측으로 부터 우리 대학과의 교류 가능성을 제안 받았을 때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경험은 단순한 탐방을 넘어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해외 진출에 대한 강력한 자극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 우리 대학의 교육이념과 목표를 각인

2025년 밀알훈련  
8월 18일부터 3차례

2025년 밀알훈련이 8월 18일부터 27일까지 포천밀알훈련센터에서 3차례(1차 18~20일, 2차 20~22일, 3차 25~27일)에 걸쳐 진행된다. 밀알훈련은 신입입생을 대상으로 우리 대학의 교육이념과 목표를 각인시키고 북음전도자로서의 헌신과 의지를 다짐하는 삶과 교육의 현장이다.

프로그램은 예배와 노동, 산행에 참여하며 말씀 묵상 및 신앙의 나눔을 통해 공동체성을 확인한다. 노동 작업은 자작나무 숲 일원에서 산책로 확보 작업 등이 진행되며 산행은 ‘우리 땅 걷기’로 선배들이 일꾼 산림지를 돌아본다.

훈련 참가자 전원은 전공과 학년에 관계없이 8개(각 조별 10여 명)조로 편성되어 상호 간의 이해와 협력을 기르고 선후배 간의 교제와 사회성 등을 키워가게 된다.

훈련기간은 폭염과 폭우가 빈번한 기간이라서 참가자들은 갈아 입을 여벌의 옷들과 신발(등산화), 모자 및 개인상비약 등을 준비하고 참석해야 한다.

밀알훈련 관련 문의는 교목실 02-950-5446 반우형 목사에게 하면 된다.

## 2025학년도 2학기 장학대상자 발표

514명에게 3억 3천8백만 원  
전체 최우수성적장학 차승민(영보2)



▲ 차승민(영보2)

장학사정위원회는 지난 30일 사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2학기 장학대상자 514명에게 3억 3천8백만 원의 장학금(국가 장학금 제외) 지급을 결정했다.

2학기 전체 최우수성적장학은 차승민(영보 2) 학우에게 영광이 돌아갔다. 차 학우는 지난 1학기에도 전체 최우수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었다.

학과별 최우수성적장학은 임지영(성서 4) 학우 등 19명이, 성적장학우수자는 정은희(사복 4) 학우 등 19명이 기쁨을 맛보았다.

간호학과 3학년은 현재 실습 중으로 추후 선발해 지급할 예정이다.

교내 성적장학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전체 최우수성적장학 ▲ 차승민(영보 2)

#### ◆ 최우수성적장학

**성서학과** ▲ 임지영(4) ▲ 김주빛(3) ▲ 황다애(2) ▲ 장예하(1)  
**사회복지학과** ▲ 임동준(4) ▲ 김소연(3) ▲ 이아진(2) ▲ 이진(1)  
**영유아보육학과** ▲ 정지민(4) ▲ 추소원(3) ▲ 박소하(2) ▲ 김리원(1)  
**시용합학부** ▲ 서유리(컴소4) ▲ 김지호(컴소3) ▲ 송준서(컴소2) ▲ 최현준(시용합1)  
**간호학과** ▲ 이송아(4) ▲ 박세현(2) ▲ 홍정인(1)

#### ◆ 성적장학우수(2등/3등)

**성서학과** ▲ 임현정(4) ▲ 송경원(4) ▲ 이효정(3) ▲ 남궁이레(3)  
 ▲ 신피터(2) ▲ 이기진(2) ▲ 김민겸(1)  
**사회복지학과** ▲ 정은희(4) ▲ 권하진(4) ▲ 김효은(3) ▲ 김채원(3)  
 ▲ 문지예(2) ▲ 서민서(2) ▲ 박정서(1) ▲ 이수민(1)  
**영유아보육학과** ▲ 오지은(4) ▲ 전선우(4) ▲ 박나운(3) ▲ 정주현(3)  
 ▲ 차현영(2) ▲ 김혜린(2) ▲ 엄은하(1)  
**시용합학부** ▲ 김원형(컴소4) ▲ 최선재(컴소4) ▲ 박세윤(컴소3) ▲ 정명국(컴소3)  
 ▲ 오성균(컴소2) ▲ 정소이(컴소2) ▲ 정서준A(시용합1)  
 ▲ 정서준B(시용합1)  
**간호학과** ▲ 김시은(4) ▲ 이윤경(4) ▲ 이소희(2) ▲ 손수인(2)  
 ▲ 권은성(1) ▲ 김경민(1)

## 3주간 행정부서 단축근무

하계방학 기간  
혹서기 냉방비 절감 목적

학교는 이번 하계방학 기간에 3주간 단축근무를 그룹별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기간은 7월 28일~ 8월 15일까지며 해당 부서는 2시간 30분 단축된 오후 3시 업무를 마감한다. 시행 1주차는 전체 부서가, 2주차와 3주차에는 선정된 부서별로 단축근무, 그 외의 부서는 정상근무를 하게 된다.

이번 단축근무의 목적은 혹서기 냉방비 절감에 있다. 한국전력은 전기료 기본 요금을 최대 전력량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발표했었다. 특히 폭염 강도가 심한 올해는 냉방기 사용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절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 대학의 지난해 해당 기간의 전력 요금은 2천 8백만 원에 달했다.

양희정 사무관리팀장은 “이번 3주간 운영으로 최소 1천만 원 이상 냉방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축근무 운영 결과 분석 후, 계속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분	일자	단축근무(오후 3시)	정상근무(오후 5시 30분)
1 주차	7.28~8.1	20부서 전체 (단 밀알캠프 주관 부서 제외)	
2 주차	8.4~8.8	입학·국제·교학·시설·전산·일립생활· NSLB지원단·조교·사무·평교·어학원	타 부서 정상근무
3 주차	8.11~8.15	대외·기획·산단·교목·일립· 성과관리·평가감사·대학원·도서관	타 부서 정상근무

##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일립(一粒) 강태국 박사 27주기 추모예배

25일 로고스홀, 최태준 목사 설교

# 강태국 박사 제27주기 추

일시 | 2025년 7월 25일(금), 오전 11시      장소 | 한국성서대학교 로고



▲ 최태준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한국성서대학교 설립자 일립(一粒) 강태국 박사의 27주기 추모예배를 25일 오전 11시 로고스홀에서 드렸다.

예배는 박태수 목사(교목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고인이 즐겨 부르던 찬송가 493장 “하늘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를 다 같이 찬송하였다. 모든 순서는 고인의 제자들이 담당하였는데 이철승 선교사(36회, C국 선교사)가 대표 기도를, 박윤복 목사(38회 송내제자교회 담임, 총동문회 총무)의 성경 봉독(왕하 2:6-11)과 최태준 목사(38회, 남포교회 담임)의 설교로 이어졌다.

최태준 목사는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제목의 말씀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들리움을 받을 때 엘리사가 그의 능력을 이어받는 장면을, 설립자와 그 뒤를 잇는 총장 등 후대들의 모습과 대비하며 “성서대학의 일은 영적인 일이다. 이 일을 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영적 능력이다. 설립자의 영적 능력이 후대들에게 갑절이나 더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대학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총동문회장 윤두태 목사(25회, 가성교회 담임)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강우정 이사장과 최정권 총장이 차례로 인사에 나섰다. 강 이사장은 “오늘 추모의 뜻은 설립자가 이룩하고자 했던 한반도 복음화의 비전을 되새기고 우리 모두 주어진 그 자리에서 밀알의 삶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권 총장은 “설립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본인의 영혼뿐 아니라 온 가족의 영혼까지 갈아 넣은 결실로 맺어진 대학이다. 교직원과 총장은 이 귀한 정신을 학우들 가슴에 심고 전하며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배에는 성서선교회 현희철 이사장, 선교회 소속 각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우, 반종원 이사를 비롯한 학교 법인 이사들, 이회숙 동문, 김동관 목사(총동문회 수석부회장)와 임원진 및 동문, 그리고 교직원 등 140명이 참석하였다.

## 주요 보직자 설립자 묘소 성묘

23일, 고인의 업적 기리고 사명 다짐



▲ 주요 보직자들이 일동면 설립자 묘소에서 성묘하고 있다.

최정권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은 23일 포천시 일동면에 있는 고인의 묘소를 찾아 성묘하였다. 박태수 교목실장의 사회로 참가자 일동은 찬송 「하늘가는 밝은 길이」를 불렀으며 최 총장의 헌화, 박태수 목사의 기도와 추모사로 이어졌다.

일동은 이어 강희정 학장의 묘소도 방문 헌화, 기도, 찬송으로 그의 평생의 업적을 기렸다.

참석 주요 보직자는 다음과 같다.

▲ 강우정 이사장 ▲ 최정권 총장 ▲ 박태수 교목실장 ▲ 강규성 부총장 ▲ 최은희 학사부총장 ▲ 조혜경 대학원장 ▲ 최은희 학사부총장 ▲ 권경만 기획실장 ▲ 최육열 입학·국제교류본부장 ▲ 김중완 일립행정본부장 ▲ 임지영 평가감사실장 ▲ 장인순 산학협력단장 ▲ 이강동 코코스 편집주간 ▲ 김병수 기획실 팀장 ▲ 김창현 교목 ▲ 박태용 시설팀장 ▲ 권오섭 밀알훈련센터 관리 담당 ▲ 포천 일동성서교회 표길홍 목사 ▲ 박문홍 전 직원

## 간호학과-계요병원 임상실습 협약 체결기로

정신건강의학 분야  
국내 최대 병원

간호학과(학과장 김주아)는 23일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계요병원을 방문, 정신간호학 임상실습 협약을 위해 상호간 업무협약을 오는 10월 체결기로 하였다. 계요병원은 1974년 설립되었으며 800병상을 보유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며 계요노인병원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계요병원과의 임상실습 협약이 체결되면 우리 간호학과는 정신 간호 분야 임상실습에 양질의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간호학과 과장 김주아 교수는 “정신 간호 영역은 국내 각 병원마다 특수성이 존재하다 보니 접근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약속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학우들의 정신간호실습은 정식 협약 후 내년 1월부터 진행된다.

협약을 위해 우리 대학에서는 김주아 간호학과장과 장인순, 고미숙, 홍소운 교수가, 계요병원에서는 김홍구 행정원장과 주요 관계자가 자리하였다. 김 행정원장은 이 병원의 최신 치료 장비와 환자 관리 시스템을 상세히 소개해 주었고 “인성과 자질 면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성서대 학우들의 임상실습을 적극 돕겠다”라고 말했다.

## 대학어린이집 「이음교육」 시범어린이집 선정

서울 시내 11곳  
상계5동보듬이나눔어린이집도 포함

대학어린이집(원장 지주나)이 지난 4월부터 서울시교육청 주관 ‘2025년 어린이집 이음교육(이음학기) 시범어린이집으로 선정, 현재 운영되고 있다. 「이음교육」 시범 어린이집은 서울 시내 4,000개 어린이집 가운데 11곳만 선정되었는데 상계5동보듬이나눔어린이집(원장 김화영)도 같이 포함되었다.

「이음교육」은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추진의 일환이며 유아(어린이집, 유치원)-초등 간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시도이다. 유아기에서 초등 학교까지 교육 전이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과 지역사회가 협력, 학습 연속성과 적응을 돕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내용은 △ 어린이집-초등학교 간 교육과정 연계 운영 △교원 역량 강화 연수 △ 보호자 교육 △ 기관 간 컨설팅, 사례 공유 등이며, 기관에 맞는 방안이 병행된다.

대학어린이집은 상천초등학교와 상계5동 보듬이나눔어린이집은 계상초등학교와 협력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주나 원장은 “이 사업의 첨병으로 선정되었다는 큰 자부심을 느낀다. 최선을 다하여 모범 사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유아들이 상천초등학교 강당에서 이음교육을 진행 중이다.

## 신입교직원 21명 밀알훈련

10, 11일 이틀, 포천 밀알훈련센터  
9일에는 신입직원 대상 소양 교육



▲ 교직원들이 식당 출입문을 정비하고 있다.

2025년 신입교직원 밀알훈련이 10, 11일 이틀간 포천밀알훈련센터에서 진행되었다. 밀알훈련은 신입 교직원에게 성서인으로서 정체성 강화와 비전을 통해 복음전도자 양육의 의지를 새롭게 다짐케 하는 과정이다.

교직원들은 첫날 노동시간에 센터 내 시설물 개선작업을 하였다. 예배당 입구의 낡은 방부목 데크를 전면 보수, 식당 내 블라인드 교체 및 부분 도색 작업 등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2일째는 산행. 1번 능선로와 자작나무 숲을 거쳐 소방 도로로 되돌아 오는 코스이다. 주위에 보이는 울창한 숲들은 모두 선배들이 땀방울을 흘리며 어린 묘목을 심고 가꾼 결과라는 설명에 모두는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다.

최정권 총장은 세미나에서 일립 강태국 박사의 삶을 생애별로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를 지키고 실천하며 전파한 거인이었다고 말했다. 설립자는 「한반도의 복음화」가 꿈이었고 사명이었다며 복음화의 일꾼 양성 기관으로 우리 대학을 세웠다. 최 총장은 “대학은 지금 거센 격랑과 마주하고 있다. 위기의 시기에 우리가 단단히 붙잡아야 할 것은 정체성이다. 73년간 하나님이 지켜준 작고 아름답고 강한 우리 대학은 분명히 이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음을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저녁에는 팀별로 묵상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성찰일지를 쓰며 성서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신 뜻을 새기고 새로운 의지의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훈련에는 신입 교수 3명과 교직원 18명이 훈련생으로 참여하였고 봉사자와 운영팀 16명 포함 전체 37명이 함께 하였다.

### 신입직원 대상 소양 교육

밀알훈련에 앞서 9일에는 신입직원 대상의 소양 교육이 모리아관 212호에서 진행되었다. 권경만 전략기획실장이 ‘한국성서대학교란?’ 주제로 우리 대학의 ‘한반도 복음화의 비전’과 ‘복음전도자 양성의 목적’을 풀어 나갔다.

양희정 사무관리팀장은 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업무 태도 및 기본 직장 예절과 규정 및 업무 협조시 유의 사항과 그룹웨어 사용, 주요 문서 작성법 등을 상세히 전했다. 김중완 행정본부장이 ‘사립대학 회계제도의 이해’로 회계의 기본 원칙, 작성법과 계정과목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신입직원들은 청렴서약서를 작성 제출하고 청지기로서 업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신입직원 9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 권경만 실장이 우리 대학의 비전과 목적을 전하고 있다.

## 발전 기금 1억 원 무명으로 후원

“배움에 힘쓰는 낮은 자들에  
작은 도움” 되기를

우리 대학을 사랑하는 무명의 후원자가 발전후원금 1억 원을 후원해 주었다. 그는 “한국성서대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동안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가르치고 적용하고 실천해 온 노력에 감사하다. 배움에 힘쓰는 낮은 자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 우리 봉사단 21명 가평 수해복구에 참여

35도 무더위 속  
섬김과 이웃사랑 실천

우리 대학교 지역사회임팩트센터(센터장 장인순)봉사단이 31일, 경기 북부에 집중 폭우로 큰 피해를 당한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에서 수해복구를 도왔다.

지난 7월 20일 새벽녘, 이곳 조종면 마일리 일대에는 무려 200mm의 물폭탄이 단시간에 쏟아져 인명피해는 물론 민가 침수, 도로 유실 및 경작지 등 큰 피해를 겪었다.

강규성 부총장과 장인순 센터장 등 21명의 임팩트봉사단원은 현장을 방문, 피해 농가에서 도움을 요청한 토사물 제거 작업을 감당하였다. 담장과 주택 사이와 마당 곳곳마다 쌓인 토사물은 2인 1조로 퍼서 옮겼고 주변 블루베리 재배지에도 시뻘건 토사물을 치웠다. 섭씨 35도의 폭염 속에서 학우들은 흐르는 땀방울을 훔치며 오후 늦게까지 작업에 힘썼다.

주민들은 “오늘 성서대학 학우들의 귀한 손길이 큰 도움과 용기를 갖게 했다” 며 감사를 전했다. 봉사에 참여한 김덕원 전산지원팀장은 “큰 수해를 당한 주민의 힘든 상처가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 봉사단원이 토사를 옮기고 있다.

## 수시 대학입시박람회 430여명 상담

취업전망, 기숙사, 장학제도에 관심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2026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7월 24~26일까지 사흘간 삼성동 코엑스 A,B홀에서 진행되었다.

박람회에 우리 대학은 신지수 입학관리팀장을 비롯 17명의 교직원이 상담에 응했다. 약 430명의 학부모 및 입시지원생들이 우리 대학 부스를 방문, 입학 상담을 받았다. 간호학과, AI융합학부, 사회복지학과에 관심이 많았으며 영유아보육학과 성서학과를 특정하고 방문한 상담자도 상당수에 달했다.

신지수 팀장은 “상담자들은 지원 학과의 취업 전망, 기숙사 및 장학제도에 관심이 많았으며 일부는 신앙에 대해 염려하는 모습도 있었다”고 밝혔다.

수시 원서 접수는 9월 8~12. 모집인원은 213명이다. 이번 코엑스 입시박람회에는 전국 4년제 152개 대학이 참가했다.

수시 입시 상담은 신지수 (02-950-5403) 입학관리팀장에게 하면 된다.



▲ 교직원들이 지원자와 1:1 상담하고 있다.

## “당신 답지 않아요”



최정권 총장

한밤중 깨어 일어나 앉아 있거나 그다지 즐겁지 않은 얼굴로 월요일을 맞이하거나 시간이 지난 후에 어디에서 살아야 하나 아파트를 검색하는 저를 보고 한 번씩 아내가 던지는 말에 동의해야 할지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후배 목회자들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성서대학의 최 총장입니다. 시간이 되면 전화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메시지는 읽었는데 전화는 없다. 아마도 후원을 부탁할 것 같은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 채플에 강사를 선정할 때도 한국 교회를 이어갈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학교에 와 보고, 이 학교의 이념을 알아 주기를 바라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강사를 선정하는 제 마음이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지방에 살면서 기부금을 보내 주는 이들을 주일에 찾아가 인사를 하고 계속적 지원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동문이거나 학교와 어떤 연관성이 없음에도 기부금을 보내 주시는 교회들을 찾아가 인사를 해야 하는 주일을 보내면서 경영과 예배 사이에 선 저를 보게 됩니다.

### 총장의 편지

미국에 들어가면 총장이 뭔가 가져올 것 같은 주변의 기대감도 마음 한구석에 부담이 됩니다. 사실은 자녀들을 만나 회포를 풀고 싶은데 정해진 집회 일정과 말 없는 기대감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설교해야 도움을 묻기 열리기 때문에 설교 중에나 혹은 개인적인 만남에서 누군가에게 학교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총장의 자리를 무겁게 합니다.

아내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랬는데….

처음 총장이 되고 나서 기도 제목 중의 하나가 총장의 업무를 수행할 때,

1. 항상 **여유있게** 하소서
2. 항상 **감사하게** 하소서
3. 항상 **은혜롭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다시 마음 속으로 새기어 봅니다. 목회가 사람이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듯이 총장이 애를 쓴다고 되는 건 아닌 줄 압니다. 그래도 애를 써 보는데 이전 애를 쓰기보다 좀 여유를 가져 보려고 합니다.



권용준 교수(성서학과)



이지민 직원(기획팀)

## 심 의 미학

방학입니다. 다들 잘 쉬고 계신가요? 우리는 심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방학이 되어도 우리는 ‘어떻게 쉬지’보다 ‘무엇을 할지’를 먼저 고민합니다. 우리 사회는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나태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은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심은 이윤과 유용성의 세계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들 심을 원하지만 정작 쉬고 있는 사람을 무가치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난 너무 바빠!”라는 불평은 불평을 가장한 자기 과시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바쁜 만큼 대단한 사람이지!” 심에 대한 평가 절하는 이 시대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음악에도 소리의 심이 있습니다. 소리의 심은 심표로 나타냅니다. 초보 연주자는 심표를 가볍게 여깁니다. 소리의 심을 잘 건디지 못하고 열린 음표를 연주하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명연주자는 심표를 존중합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슈나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연주하는 음표는 다른 피아니스트와 다를 바 없소. 그러나 음표와 음표 사이의 심표, 그곳이 바로 예술이 존재하는 곳이라오.” 심표 없는 음의 연속은 성가시고 지루한 소음에 불과합니다(사이렌 소리를 생각해 보세요!). 심표는 음표의 반대나 공허함이 아닙니다. 음표와 심표는 서로를 재창조하는 음악의 한 쌍입니다.

음표와 심표가 한 쌍이듯 일과 심은 한 쌍입니다. 심은 창조의 일을 마치고 쉬신 하나님을 본받는 일입니다. 일과 심은 창조의 리듬입니다. 우리가 그 리듬을 탈 때 창조의 선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심은 일을 위한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마지못해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은 그 자체로 진지합니다. 심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잘 쉬고 계신가요? 우리 손을 가만히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과 들려주시는 말씀을 보고 듣는 심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아버지

아버지를 글로 담아낸다는 건 뜻깊은 일이다. 아버지는 사랑이 많은 분이다. 아무리 힘들고 고되어도, 우리 남매를 향한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았다. 오빠가 긴 사춘기를 지나던 시절에도 매를 드신 적도, 거친 말씀 하신 적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따뜻하게 품어주시며 묵묵히 내 곁을 지키셨다.

내가 일곱 살 무렵, 아버지 따라 산에 올랐던 날, 갑자기 비가 쏟아졌고 나는 힘들다며 떼를 썼다고 한다. 위험한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었던 아버지는 우산으로 내 엉덩이를 툭한 번 치셨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 기억이 없다. 아프지도 않았고, 마음에 남은 상처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그날을 아직도 기억하신다. 아마도 나를 때린 자신을 많이 자책하며, 혼자 조용히 눈물을 삼키셨던 것 같다.

어릴 땐 궁금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바보처럼 보일 만큼 화를 내지 않으셨을까?’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배려였다는 것을, 아버지는 언제나 타인의 마음을 먼저 살피던 분이셨다. 누군가 상처받기 전에 조용히 알아채고, 더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감정을 굳이 참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도, 누군가 아플까 봐 차라리 자신이 조금 더 아픈 쪽을 택하셨다. 참는 것이 더 익숙하고 편한 사람. 그렇게, 조용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한 분이셨다. 말보다 행동으로, 소리보다 온기로...

그런 아버지께 내가 가장 깊이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모습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던 것이다.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다가갈 수 있었다.

아픈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어느 날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지혜롭게 잘 살길 바란다. 모든 건 시간이 약이니까.” 그 말에는 세상 무엇보다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내 편이셨고, 언제나 나를 믿어 주셨다. 그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다. 아버지의 따뜻한 시선과 조용한 사랑은 지금도 내 삶을 붙들어 주고, 다시 일어서 용기를 준다.

반세호의

목양칼럼



반세호 목사  
(성서대학교교회담임)

## 내가 귀 기울여야 할 소리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로 이동할 때 빠른 경로였던 배를 타지 않고 걸어가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선교 일행은 먼저 배를 타고 이동하고 바울만 혼자 그 길을 걷습니다. 몇 해 전 튀르키예를 방문해 그 길을 걸으며 목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드로아 해안 옆에는 드넓은 평지가 펼쳐졌고 수백마리의 양들이 평온하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양들은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어떻게 목자를 따를 수 있을까?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양들은 주인의 목소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불러도 절대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근동 지역의 목자는 단순히 양을 돌보는 사람이 아닌 양들과 함께 생활하고 우리의 입구에서 밤에 잠을 자며 보호했습니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불러 개별적으로 돌보았으며 그래서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종일 수많은 소리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부터 각종 알람이 쏟아지고 “더 성공해야 해”, “더 많이 소유해야 해”, “더 인정받아야 하고”라는 목소리가 끊임 없이 귓가를 파고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진짜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10:10)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풍성함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주목해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 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 그 길을 혼자 걸었던 것처럼,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음 가득한 일상에서 잠시 멈추어 서는 시간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익혀야 합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익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으로 부르시고, 참된 인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임경미의 토닥토닥시 133

### 호랑이 김창완

동물원에 갔다

호랑이를 보러 갔다

호랑이가 어흥 할 때까지 기다렸다

한참을 기다려도 호랑이는 하품만 했다

시시해서 돌아서는데

갑자기

거꾸와어루황~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바지에 오줌을 싸다

망할 놈의 호랑이 어흥 하고 울 줄 알았더니

순 엉터리로 울어서 진짜 놀랐다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470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고정관념’을 “잘 변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주로 결정하는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정관념은 때로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가로막기도 한다.

호랑이 소리를 ‘어흥’이라고 익힐 때부터 우리의 생각은 고정화되기 시작한다. 병아리는 ‘삐악삐악’, 송아지는 ‘음매 음매’, 강아지는 ‘멍멍멍’, 고양이는 ‘야옹야옹’…… ‘정말 그러한가? 다르게 표현할 수는 없는가?’ 고민하기도 전에 우리는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익혀버린다. 이제나저제나 호랑이의 ‘어흥’ 소리를 기다렸던 아이 역시, ‘거꾸와어루황~’ 천지개벽하는 호랑이 소리에 그만 오줌을 싸고 말았다. “망할 놈의 호랑이 어흥 하고 울 줄 알았더니 순 엉터리로 울어서 진짜 놀랐다”라고 넋두리하면서.

생각의 벽에 갇혀,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 한 번쯤 ‘정말 그러한가?’ 질문하며 머릿속을 넓혀볼 일이다.

## 엄마의 진심, 총장의 진심 최정권

최정권의 온유한  
GALLERY  
60호



어릴 때부터 돈이 없는 엄마를 보고 살았다. 독수리 오 형제, 아들만 다섯을 키워온 엄마의 삶은 고달파 보였다. 나는 그런 엄마를 도운 게 아니라 엄마가 찬장에 넣어둔 동전을 가져가 만화방 아저씨에게 갖다주었다.

집 마당 처마 줄에 걸린 빨래처럼 만화방 벽에 걸려있는 만화책들은 엄마의 동전을 줄어들게 하였고 내게는 빨랫방망이에 맞는 결과를 안겨 주었다.

자라면서 본 엄마의 진심은 밥이었다.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들은 절대로 굶기지 않겠다는 엄마의 진심은 아버지의 박봉을 쪼개서 남자 여섯을 먹여 살렸고 없어지는 동전에도 사랑을 보여주었다.

얼마 전 대학 총장 모임에서 만난 총장들의 얼굴이 이전보다 늙거나 초췌해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어쩌면 한국 사립대학의 총장들은 다 돈 없는 모친들의 자식일지도 모른다. 모두 돈에 목말라 있다. 모르긴 해도 내 모습도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총장으로서 내 진심이 어찌면 엄마에게서 왔을 수도 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학생들 잘 먹이게 좀 도와주세요. 우리 학교는 영성의 밥, 전공의 밥, 그리고 점심의 밥, 이 3가지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키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십만 원, 백만 원도 도와주시고 3만 달러도 보내 주고, 비행기 타고 오셔서 천만 원도 갖다주셨다. 서투르게 첫걸음 걷는 총장의 진심을 기억하고 두 번씩 1억을 보내 주시던 분도 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설립자가 학교를 세우면서 말한 거지가 된 거다. 거지가 되어도 좀 나은 환경에서 잘 먹이면서 잘 가르치고 싶은 총장의 진심은 가슴앓이가 되었다.

“난 지금 가슴이 아프다.”

유아들이 사용할 운동용품을 대어받고 있다.



대안어린이회

### 운동하러 노원가게

7~8월부터 노원구청의 지역사회 연계 사업인 생활체육 '운동하러 노원가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관내에서 운동이 필요한 곳에 운동용품을 대어해 주는 이동형 체육 사업이다.

유아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50여 종의 체육 교구를 이용한 흥미로운 놀이와 경기로 신체 활력을 경험, 심신 향상은 물론 협동심과 창의적 사고력 그리고 사회성까지 증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대안어린이집은 지역사회와 연계된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유아에게 균형 발달과 나날이 즐겁게 성장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갈 것이다. [사랑반 김슬기 교사]

후원자들이 보내준 김치 앞에 자리한 봉사자와 직원들



관노북회와서울노원가게

### 김치 나눔 - 461 세대에 배추김치 5Kg

9일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여름 김장 지원 행사'를 진행하였다. 월계는 2021년부터 여름마다 김장을 지원해 왔고 올해는 461세대에 배추김치 5Kg를 전했다.

이번 나눔에는 온라인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 모금에 참여한 2,152명의 시민과 개인 후원자 10명, 선명한의원, 월계희망마을공동체 '해오름 봉사단', (주)아워홈과 6명의 자원봉사자가 뜻을 모았다. 주민들은 장마철 높은 물가로 가계 운영이 힘든 상황에서 이번 지원이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하였다. 앞으로도 지역민을 더욱 섬기는 월계복지관이 될 것을 다짐한다. [지역사회조직팀 이동재]

유아들이 게이트볼 놀이를 즐기고 있다.



대안어린이집문

### 신체놀이

7, 8월 폭염과 무더위를 이겨낼 방법으로 신체놀이를 정하고 노원구가 운영 중인 '운동하러 노원가게'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주 1회,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는 신체 놀이 운동기구를 지원 받고 이를 활용한 놀이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야구 배트, 바룬다 볼, 컬링, 게이트볼 등 평소 어린이집에서 경험 못했던 운동기구와 놀이를 선택, 사용하였다. 친구와 혹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놀이로 모두 모든 과정을 긍정적으로 즐겼다. 협동성과 사회성 그리고 무더위에 의한 스트레스까지 날려준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나리반 김성연 교사]

담임목사가 사랑방 심방을 갖고 있다.



호신대교회교인

### 사랑방 심방

무더위 7월과 8월, 사랑방 방학 기간을 맞아 반세호 담임목사가 각 사랑방을 심방하는 여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심방은 단순한 방문을 넘어, 사랑방 식구들과 지나온 믿음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되는 시간으로 이어진다.

말씀과 식사,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 사랑방 구성원들은 주 안에서 연결과 회복을 경험하는 축복과 은혜를 맛보게 된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교회 구성원의 마음에 성서 공동체성이 더욱 견고히 세워지고 있음을 느끼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앞으로도 모든 사랑방이 복음의 기쁨 안에 자라가기를 기대한다. [박효민 목사]

아동들이 스마트기기 사용자 만들기 교육을 받고 있다.



월계지역아동센터

### 디지털 시민 교육

24~25일 2일간 KT IT서포터즈의 '찾아가는 디지털 시민교육' 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올바른 디지털 윤리와 안전을 배우고 건강한 디지털 문화 및 각종 문제 상황에 잘 대처하도록 돕는 교육이다.

20명의 아동이 참여해 스마트기기 사용자 만들기, 책임감 있는 행동 습관 만들기, 디지털 범죄 상황 파악과 사이버 폭력 인식하기 등의 영상을 시청했다. 또한 만들기 활동지를 통해 디지털 시민의 역량과 지혜를 높여갔다. 참여자들은 사이버 폭력의 위험성을 다시 생각하게 됐으며 균형적 사고와 절제, 자신과한 약속을 굳게 지키겠다는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유아랑 센터장]

영유아가 하이킥풀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상계백병원  
노원유아종합지원센터

첫돌을 축하해 줄 포토존백·돌·이장식대



노원유아종합지원센터

온누리반원들이 별내 물놀이장에서 여름을 즐기고 있다.



상계5동어린이집

늘사랑 워터파크에서 물놀이에 흥분 빠져있는 유아들



늘사랑어린이집

참여자들이 맛있는 빵을 만들고 있다.



늘사랑어린이집  
노원유아종합지원센터

## 키즈 풀 물놀이

3일 상계백병원어린이집은 모든 영유아와 함께 무더운 여름과 잘 어울리는 하이킥풀로 현장학습을 다녀왔다. 아이들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푸른 수영장을 둘러보며 합성과 함께 물놀이를 즐겼다.

시원한 물속에서 친구들과 물을 튀기며 크게 즐거워했고 수영과 비치볼 놀이로 활기찬 시간도 보냈다. 물놀이 후에는 간식과 점심을 나누고 실내 놀이터에서는 놀잇감과 다양한 기구를 활용해 보며 에너지를 발산하였다. 실내외 놀이가 어우러진 여러 체험학습이 아이들에게는 더욱이 특별한 추억이 되었다. [맑은반 이진아 교사]

## 포토존 백·돌·이

7월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자녀의 백일·돌을 맞는 가정에 사진 촬영은 물론 상차림과 소품, 공간까지 무상 제공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양육자의 수고로움과 경제 부담을 줄이고 소중한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는 '백돌이' 서비스이다. 백돌이의 의미는 '백일·돌, 이 순간을 남기는 포토존'의 약자이다. 본 서비스는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접수 후 예약한 시간 동안 자유롭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8월까지 모든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리에 운영 중이다. [보육전문요원 이상희]

## 여름 물놀이

2일 만 3세~5세 반은 별내에 있는 물놀이장에서 물놀이를 즐겼다. 유아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현장에 도착하였다. 밝은 햇살과 시원한 물줄기가 모두를 반겨 주었다. 출발 전, 안전한 놀이 규칙을 사전 학습하였고 교사들은 현장에서 모두의 안전 이행 여부를 끝까지 확인했다. 미끄럼틀에서 아이들은 물을 튀기며 웃음을 나눴고 친구들과 손잡고 수영장 가장자리를 돌며 소중한 여름 추억을 하나씩 쌓아갔다. 중간중간 물도 마시며 즐겁게 놀도록 수시로 확인하고 그늘에서 충분한 쉼도 갖게 하였다. [온누리반 교사 강혜진]

## 워터파크

무더위 대처를 위해 반별 물놀이를 진행하였다. 4일에는 0세~1세반이 슈슈플레이스, 11일은 만 2~3세 유아 아로하 포레스트에서 물놀이를 했으며 25일은 전체에게 개방된 '늘사랑어린이집 신나는 워터파크'를 개장, 연령별 시간차로 이용하도록 했다.

수영장 놀이, 낚시 놀이, 물풍선 던지기, 물총놀이, 물감 터트리기, 물감 그림그리기 등 여름에 즐길 다양한 놀이를 제공하였다. 이번 행사는 오감 자극과 정서 경험을 맛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원한 놀이로 무더위를 보내며 여름날의 추억까지 안겨 준 뜻깊은 시간이 됐다.

[신나는반 최호정 교사]

## 베이킹 원데이 프로그램

2일 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베이킹 원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피해자가 일상을 떠나 새로운 경험을 통해 위안과 치유를 돕는 시간이었다.

참여자들은 본따블로에서 망고패션후르츠타르트 만들기에 참여했다. 반죽을 잘 섞고 모양까지 예쁘게 빚어낸 결과물은 특유의 달콤하고 고소한 향이 공방에 가득, 모두의 얼굴마다 미소를 피어나게 하였다. 참석자들은 "오랜만에 아무 생각 없이 맛있는 빵을 만들어 내면 곳곳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라며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단순히 빵 만드는 걸 넘어, 서로에게 따뜻한 지지와 연대 및 평온을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김지수 상담사]

# 「성서대학동기운동」 기부현황

www.bible.ac.kr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동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 2025년 6월 21일부터 2025년 7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 **접수처**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1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b>무명</b>	<b>1억원(운영)</b>	<b>홍설자(이사)</b>	<b>100만원(운영)</b>
성서대학교회(반세호 목사)	935만원(운영)	정휘진(법인사무국)	100만원(운영)
미사목민교회(이정목 목사)	191만원(운영, 장학)	(주)중앙교육	100만원(영보)
경성교회(박종걸)	100만원(운영)	이례장학	100만원(장학)

## 약정자 명단

<b>동문 및 가족</b>	1구좌 박윤경 2구좌 송동식 안차남 이재은	<b>부설기관</b>	1구좌 김정희
1구좌 강나경 고대운 궤미화 김태웅 김한나 배창경 서 현 신경자 이정훈 정다연 정해문 최승주 홍선호 설에스더	<b>교직원 및 가족</b>	1구좌 김은지 3구좌 변송이	<b>평화교회</b>
2구좌 김성훈 신기현 최현우	1구좌 김지환 신 군 정옥환 조성찬	3구좌 김초롱	1구좌 안종민
5구좌 권은지 정슬기	2구좌 문건희 이은혜	<b>삼일성서교회</b>	<b>화도드림교회</b>
5구좌 김기숙	3구좌 방진희	5구좌 동두천성서삼일교회	5구좌 화도드림교회
10구좌 이례장학	5구좌 신재윤	<b>성서선교회</b>	<b>일반</b>
<b>재학생 및 가족</b>	10구좌 이슬기	5구좌 동두천성서삼일교회	1구좌 김혜란 이현수 최은실
	11구좌 최지은	<b>수원교회</b>	2구좌 조혜령
	20구좌 김승욱	1구좌 홍성호	<b>단체 및 기관</b>
		<b>어린양교회</b>	8.3구좌 (주)중앙교육

## 기부자 명단

<b>동문 및 가족</b>	윤영원 윤정숙 윤지준 윤현중 이광삼 이광석 이권호 이두현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복희 이상용 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선정 이수진 이신재 이영식 이용원 이용철 이윤아 이윤주 이은광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종근 이 진 이진경 이철승 이학준 이혜련 이현우 이현식 이인지 이혜란 이화연 이환기 인지혜 임상일 임은성 임은진 장동명 장윤국 장익봉 장익심 전명수 전명자 전미영 전상호 전아름 전아영 전한나 정다연 정선도 정영교 정은희 정인철 정재연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조소연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유민 조은경 조차현 주민자 주성현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채종원 천난희 최규봉 최서희 최선경 최성자 최승주 최승진 최윤석 최인호 최중운 최진희 최현정 최혜림 탁국현 탁윤석 하수현 하 진 한경순 한상장 한해우 허영숙 홍선호 홍성대 홍정심 설에스더 황보혜영 열매맺는교회	양연주 유미영 유익숙 유광길 이기주 이나연 이마리 이상복 이선영 이슬강 이예원 이우진 이유미 이우진 이은애 이의선 이재은 이종임 이종희 이현우 이혜영 임수경 임은령 임은희 임은희 임주영 장유정 장재원 전영희 정나나 정복자 정성민 정영용 정옥순 정 완 조성진 조소정 조현석 지다은 최수지 최윤준 최인경 최호정 탁명화 하지혜 한민수 함미미 허춘선 홍진옥 홍해주 황인숙 등대교회	박윤경 백인애 송지민 양은성 이동기 이마숙 이성란 이성영 이수진 이연신 이정윤 이허람 이혜정 임동화 임종우 장영정 전계화 조영준 지중배 한승천 홍창훈
5천원 김남혜	3만원 고은영 권서영 권우주 권은지 김윤정 김은선 김재임 민승철 박기혁 반세호 설보경 성인선 우종엽 윤문순 이길순 이다윤 이성은 이인나 이윤성 이주연 이인지 임연식 장영훈 전지혜 정슬기 차주엽 최소린 탁현정 태지선 황영숙	2만원 강은덕 강현중 곽은혜 권영진 권윤주 김미옥 김선미 김선옥 김승희 김정숙 김지영 김지혜 김창환 김현정 김형태 김효선 문순용 박명규 박유순 박한을 송동식 송세희 신동숙 여진옥 연성희 오명일 유효진 이경민 이다원 이동훈 이미영 이선경 이선미 이승진 이승찬 이용구 이은영 이혜란 장영순 전옥순 전옥순 정인숙 조복임 조율이 최경애 최문정 최영숙 최유승 최장호 함은애	2만원 강은덕 강현중 곽은혜 권영진 권윤주 김미옥 김선미 김선옥 김승희 김정숙 김지영 김지혜 김창환 김현정 김형태 김효선 문순용 박명규 박유순 박한을 송동식 송세희 신동숙 여진옥 연성희 오명일 유효진 이경민 이다원 이동훈 이미영 이선경 이선미 이승진 이승찬 이용구 이은영 이혜란 장영순 전옥순 전옥순 정인숙 조복임 조율이 최경애 최문정 최영숙 최유승 최장호 함은애
1만원 강순성 강애슬 강옥경 강은혜 강정민 강정희 강주옥 고대운 고재민 곽미화 곽원균 구분길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권순길 권순용 권슬기 권유철 권정인 권지연 권희조 금동욱 금필규 김가영 김다솔 김도훈 김두환 김명화 김명희 김무열 김민정 김민욱 김병렬 김선근 김세현 김수연 김수정 김순덕 김순화 김승훈 김승희 김예진 김유미 김유현 김은경 김은석 김은주 김은찬 김은혜 김용환 김일준 김재현 김정희 김 진 김진숙 김진영 김태웅 김하은 김한나 김현정 김현진 김혜영 김화석 나선영 남궁화 남범수 남성희 노정현 노한나 노 만 류요한 류한나 문성령 문수란 문정혜 문홍철 민정은 박경수 박성준 박수진 박순임 박윤복 박재숙 박재신 박종주 박지영 박창민 박항식 박형택 박혜인 반해민 반해성 방지연 배은휘 배창경 백명희 백연옥 백연주 백래승 백항목 변지윤 서규원 서유미 서 용 서진희 서 현 서희영 손명배 손영화 손진규 송민규 송비울 송순덕 송향숙 송현미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연정 신영옥 신은혜 신지는 심두한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양주향 양혜영 엄미지 엄보영 연현숙 오세천 오찬미 오채엽 오현호 용아름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수정 유영진 유주홍	4만원 박주은 송인성 신은진 5만원 강경옥 김기숙 김진경 남영란 남희경 서명주 송복순 신상훈 유양숙 이기훈 이병철 이부호 이정근 이지은 최경환 최승희 가화교회 생명의빛교회	3만원 박보병 배정준 전희문 최정규 황미숙	
1만5천원 이예람	6만원 정동주	5만원 김명자 김희선 박선희 박인규 성정자 손미연 송희경 안종현 윤수호 이재현 이혜영 정주화 정태리	
2만원 강나경 고난홍 고성호 곽지윤 구연민 국소영 김규리 김동훈 김미나 김복녀 김성애 김성훈 김연정 김영래 김영태 김윤길 김원미 김은하 김은혜 김재원 김재철 김재한 김정복 김중재 노민지 류종열 박민주 박상수 박성주 박인순 박재승 박정연 박주영 박혜수 성성은 소경숙 송만호 신정섭 신화영 안선례	10만원 김선옥 김장교 김중숙 김진만 백승우 서광진 서수경 신치선 이정원	10만원 장은정	
	11만원 유선미	<b>교직원 및 가족</b>	
	20만원 박예찬	1만원 강신애 곽한나 권관희 김미영 김상일 김선준 김세미 김세진 김애란 김유진 김중현 김지환 김지효 김춘하 김형중 류은미 박남일 박덕자 박명우 박요서 박연지 박주양 반우형 서광철 양승원 유성준 이지민 임수아 장경순 전광선 전귀선 정현아 진달래 허윤민 묘시다고조	
	22만원 성나표	2만원 김민경 강승현 고진주 권민주 권서후 김남준 김봉재 김세원	
	100만원 이례장학		
	<b>재학생 및 가족</b>		
	1만원 강성철 김민서 김성아 나예린		

